

다산포럼

‘천 개의 눈’이 보는 세상에도 희망을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지난 일요일, 나는 지하철을 타고 극장에 갔다. 오는 길에 재래시장 길목에서 따뜻한 ‘장터국수’를 사 먹었다. 국수집에서만 현금을 냈고, 나머지는 다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시티즌포’(Citizenfour)(2014)를 보니 영 기분이 거꾸로하다. 내 행적과 취향 모두 정보화되어 ‘빅브라더’에게 전송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암호를 통해 에드워드 스노든과 접선에 성공한 로라 포이트라스와 ‘가디언’ 기자 글렌 그린월드가 8일간 홍콩 호텔에서 비밀리에 찍은 ‘시티즌포’는 정보 감시망의 활약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스티리 장르영화보다 더 긴장감 넘치는 이 기록물은 올해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상을 수상하며 한국에도 최근 개봉했다. 극

장은 한산했지만, 정보 감시 세상의 민낯을 보며 한숨 쉬는 소리가 새어 나온다.

2013년부터 뉴스를 통해 소개된 이 특급 정보는 올리버 스톤 연출의 ‘스노든’(Snowden)으로 2016년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NSA와 CIA에서 IT 전문가로 일했던 스노든은 감시 프로그램, 즉 인터넷 통신망·페이스북·구글 이메일 등을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초특급 정보를 털어놓는다. 그가 기밀을 하나씩 털어놓으면, 마주 앉은 그린월드가 기사를 쓴다. 그 기사는 뉴스를 타고, 세상이 떠들썩해 진다. 스노든을 잡으려는 미국 정부에 대항해 그를 도우려는 협도 있다. 러시아 공방에서 40여 일간 숨어 지내던 그는 결국 러시아로 망명하게 된다.

“스노든이 공개한 내용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스노든은 물론, 다른 내부 고발자의 용기에 감사하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그린월드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과 이 상을 나누고자 한다.” 포이트라스의 수상 소감은 ‘천 개의 눈’이 보는 세상에서도 살 길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

이 작품의 존재는 눈치 보는 언론 위에

또 다른 미디어의 존재가 있음을, 즉 막강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독립 다큐멘터리의 힘과 기능을 전해 준다. 세계영화제를 휩쓸며 극장에 개봉되는 놀라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들은 기자나 탐사보도 출신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니 유사한 영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트루먼 쇼’(The Truman Show)(1998)는 평범한 남자 트루먼을 지켜보는 24시간 리얼리티쇼에 관한 영화이다. 첫눈에 반한 메릴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던 트루먼은 모든 것이 통제된 세트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익사한 줄 알았던 아버지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 통제 밖의 계기가 이를 일깨워 준다. 그는 통제된 일상을 벗어나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지만 하늘도 바다도 다 세트인 뻘이다. 창조주 같은 피디의 협박에 저항해서 세트 세상을 박차고 나가는 트루먼을 보며 탄생부터 그를 지켜 본 시청자들은 환호를 보낸다.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2002)는 2054년 워싱턴을 무대로 벌여줄 미래 범죄를 예측해 범주자를 미리 처단하는 첨단시스템으로 사회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래 세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

시를 침해하는 통제의 정당화라는 한계가 밝혀진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스티리 영화 장르는 네트워크 권력을 드라마의 쟁점과 스펙터클로 다루고 있다. 첩보원 제이스 분이 국가 권력에 봉사하다가 버려진 후, 도피하며 저항하는 ‘본 시리즈’는 지구촌 어디나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CCTV 스펙터클 액션을 보여 준다. 한국의 범죄 스티리 ‘감시자들’(2013)도 정보 감시와 통제의 힘에 방점을 찍는다.

안전에 위해 곳곳에 위치한 CCTV들, 많은 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늘 무언가를 전송한다. 판옵티콘을 빌어 푸코가 경고한 규율사회는 정보화 흐름을 타고 통제사회로 진전되었다. 정보의 제국 속에서 도 양심과 용기를 갖춘 탈주는 연대의 희망을 보여 준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감행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받아 보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정보사회의 또 다른 힘이기에 때문이다.

영웅 또는 배신자로 불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과거 나는 정부를 위해 일했지만, 이제 대중을 위해 일한다. 나는 그저 목소리를 내는 한 시민일 뿐이다”라고 한 스노든의 답도 여기에 공명한다.

NGO 칼럼

조아라 선생의 삶을 돌아보며



박정순  
광주YWCA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관장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자리한 소심당(素心堂) 조아라(1912~2003년) 기념관이 개관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기념관은 조아라 선생이 생전에 아끼셨던 70년된 백일홍이 있는 아담한 정원과 함께 남구 제중로 46번길 306(양림동 108-23)에 들어서 있다. 조아라 선생이 2003년 7월 소천할 때까지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1층에 자리한 유물전시관에서는 조아라 선생이 40여년간 헌신했던 YWCA 등 여성운동들에 대해 만날 수 있다. 무궁화 훈장을 비롯한 유품들은 항상 가난하고

혈벗은 민중과 함께하며 청빈을 몸소 실천했던 조아라 선생의 단면을 보고 느끼게 해준다.

발걸음마저도 숙연하게 하는 목재계단을 오르면 기념관 2층 창문 저 멀리 무등산이 아련하게 들어온다. 이곳 사진전시실에서는 조아라 선생의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연도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선생님의 흔적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백일홍은 ‘그리움’이라는 꽃말이 있다. 1층 정원을 지키고 있는 백일홍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조아라 선생에 대한 애뜻함을 대신해 꽃을 피운다. 백일홍은 조아라 선생이 좋아하던 꽃이기도 하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처럼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만 며칠 못 가는 다른 꽃들과 달리 백일홍은 7~9월 사이 세 차례나 꽃을 피운다. 9월 초까지 흐로 고고하게 붉은 꽃을 피우는 백일홍은 생전 민주화 및 여성 교육을 향해 애쓰던 조아라 선생의 삶과 닮았다.

조아라 선생의 1주기를 맞이하기 전인

지난 2004년 조아라 선생 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있었다. 조아라 선생의 사랑과 헌신의 삶을 조명하며, 이 삶 속에 녹아 있는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5년부터는 지역사회에 선생의 정신을 더욱 더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광주 YWCA 2층에 기념실을 조성했다. 그리고 꼬박 10년 만에 독립된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여기를 찾는 사람들은 중·초·고등학교생, 대학생, 일반인, 해외여행객 등 다양하다.

기념관을 다녀간 뒤 “참으로 광주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셨는지 몰랐다”, “나도 이런 겸손함과 리더십을 배우고 싶고 싶다” 등과 같은 포부를 가지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 교수님은 “얼마 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일면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고 피비린내가 난다면, 이곳은 왠지 따뜻한 느낌을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조아라 선생님의 정신을 함양시켜

제2의, 제3의 조아라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셨던 조아라 선생님. 인권, 복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조아라 선생의 마지막 소원은 평화통일이었다. 조아라 선생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1992년 9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린 남북여성성토회에 한국여성계 대표로 참석하며 통일의 불고를 트는 일에 앞장섰다.

아흔이 가깝도록 역사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 사회복지, 평화 운동에 헌신하며 씩씩이 달려온 삶이었다. 늘 험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정직한 삶을 사셨던 분이이다.

이제 ‘광주의 어머니’ 소심당 조아라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한 기념관을 통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



김병태  
광주 대인치과의원 원장

항상 좁은 공간에서 틀에 박힌 생활을 한 탓인지 주말에는 가족들과 야외로 나가서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하는 습관이 생겼다.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즐기다 보니 우연히 우리 문화재를 접하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어 나름대로 알은 지식을 쌓게 되었다.

지금은 주말에 자연과 더불어 힐링하면서 그곳에 있는 문화재를 접하며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는 일석이조의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다.

문화란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인위

적으로 지속시키려는 노력으로, 그 기반은 우리들의 의식주에 있다.

식물에 견주어 그 시대의 이념이나 사상이 뿌리에 해당한다면 꽃과 열매는 문화재인 것이다. 뿌리가 깊으면 좋은 문화재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 이념이나 사상이 없어지거나 약해졌어도 현존하는 문화재를 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유추하면서 우리들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구상에 영원한 이념은 없다. 하나의 이념이 탄생한 뒤 다른 새로운 이념이 나올 때까지는 길어야 대략 250년 주기를 거친다고 한다.

작금 위정자들이 역사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유·무형 문화재들이 말해주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재를 통해, 그 당시 사건들로 인해 우리들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문화재의 80%는 불교 문화재다. 불교문화를 공부하게 되면서 선인들의 우수함과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우

리 나라는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덕분에 문물이 서(西)에서 동(東)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바쁘게 받아들여야 했다.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외부 문화들을 수용했다.

그런데 우리민족의 탁월성은 선별적 수용에 있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완전하게 이해를 한 후에 재창조하는 능력도 우수했다. 즉, 더 좋은 꽃과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입고출신(入古出新), 범고창신(法古創新),감고계금(鑑古戒今)의 정신인 것이다.

사찰의 입구부터서는 우리는 불교의 우주관을 조형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불이문)을 지나서 도리천에 도달하여 수미산 꼭대기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구도자는 범화선연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불전사물이 범천의 주악처럼 일승원음(一乘圓音)으로서 반갑게 맞아 주었을 거다. 열심히 수행하는 구도자들에게는 청량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일주문 밖

에서 번뇌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의 일승원음이었을 것이다.

주자가 주자학을 시작했지만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는 조선 성리학이라는 우리들에게 맞는 이념을 재형성하여 조선을 지탱하는 이념이 되었다.

200여 년 되는 기독교 이념이 많은 순교자들을 내내서도 정착할 수가 있었던 것도 우리들의 폭넓은 수용성과 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맞는 시·문·사·화를 꽃 피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학이 아니고 미래학이다. 과거를 잃어 버리면 반성도 혁신도 할 수 없다. 선인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문화재를 알면 알수록 즐겁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끈기와 인내심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社說

한전 이전 1년 나주 혁신도시 상전벽해 됐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다. 1년 사이 인구도 6000여 명이 늘었다. 지난해 이맘때 한국전력 본사가 나주로 새 동지를 튼 이후 일어난 변화다. 허허벌판이었던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는 이제 광주·전남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뽕나무밭(桑田)이 푸른 바다(鰲灣)로 변했다.

빛가람 혁신도시 성장은 한전 이전 이후 본격화됐다. 한전이 본사를 옮기기 전 3900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년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이 지역은 한 해 4.33%라는 전국 최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전은 본사 이전 1년간 에너지밸리 조성 등 지역 상생 발전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세계적인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만 77개의 크고 작은 기업을 유치했다. 이전 공기업 이외에 민간기업 발걸음까지 혁신도시로 향하게 한 셈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나서는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혁신도시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다. 한전은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특화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빛가람 혁신도시로 인해 전남도와 나주시의 올해 세수는 800억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전 공공기업들의 사업이 계속되고, 전입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2016년에는 지방세 징수 규모도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도시활성화에도 최고 속도를 내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과거 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이 대타협과 양보로 이뤄냈던 화합과 상생의 다디단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수완지구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늘려야

광주 수완지구(수완동)는 단일 동(洞)으로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8만여 명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구에 비해 버스 노선도 적은 편인 데다 특히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안내시스템(BIT)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불편이 크다고 한다.

실제로 수완지구 내 전체 버스정류장은 43곳인데 안내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고작 6군데뿐이다. 아직까지는 추가 설치 계획도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광주시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완지구의 인구 급증을 내다보지 못한 탓이 크다.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아파트 숲이 들어서면 교통 편의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질 텐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근시안적인 행정 마인드가 주민 고통을 불러왔다면 지 나친 비판일까.

시라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버스정류장 이용자나 노선 수, 환승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이며 수완지구 조성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버스 이용자가 적어 정류장 도착 안내 사업 대상도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도 그대로다. 해당 지역민들은 버스 노선이 적은 안내시스템(BIT)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해결책을 외면하는 행정에 더 속상해 한다. 금명간 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업을 마쳐 수완지구 운행량이 늘더라도 도착안내시스템 확보 계획은 빠져 있어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1대당 200만~1300만 원 하는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수완지구 시내버스 이용객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아진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여럿이서, 많은 이가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다.

無等鼓

“겨우 요것 달았어?” “최선이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철수(61) 판화가의 작품 ‘가난한 머무송이에게’에 적힌 대화식 시문(詩文)이다. 보잘것없는 머무송이에게 겨우 요것 달았냐고 핀잔을 주는데 의인화된 머무송이는 한 알, 한 알의 열매를 위해 한여름 비바람과 땀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한다.

또 다른 작품들을 보자. “저물도록 일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름니다. 밥은 달고 잠은 깊을 겁니다.”(‘하늘 이고 저물도록’)

“바라 꽃이대! 봄날이 길 떠나기는 좋지 가야겠다! 있거라”(‘좌탈-바라! 꽃이다’)

이철수의 판화는 소소한 일상사 속에 감춰진 진리를 포착하거나 선(禪)불교적인 화두를 던진다. 1980년대에 민중미술을 하던 그는 1990년대 이후에 일상적 또는 선불교적인 작품세계로 변화하며 ‘판화로 시를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판화를 보는 이들은 그림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화제를 되새김질하며 신선한 울림과 함께 따뜻한 위안을

받곤 한다.

이철수 신작 판화전(‘내가 불꽃 소식 해라’)이 지난 3일부터 금남로 3가 대동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원불교 사상의 근간이 되는 한글경전 ‘대중경’ 연작으로, 이전에 한 오던 선불교적인 작품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든다.

작가는 “30대에 ‘대중경’을 접했을 때는 경전의 가치를 알아볼 안목이 없었다. 그러나 50대 후반에 다시 만난 경전은 정말 큰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어 연작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다. 작가는 경전을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수십 차례 반복해 읽으면서 떠오르는 구상을 포스트잇에 메모해 가며 300여 장이 넘는 밑그림을 그린 후 꼬박 3년 동안 모두 205점의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앉아서는 하고 서서는 못하는 선이면 병든 선이라...”는 경전 말씀에 작가는 “참선수행도 ‘테이크아웃’할 수 있다”는 말씀(“테이크아웃 선”)이라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였다. 그림이 궁극한다면 전시장을 한번 찾아가시길. 전시는 9일까지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
| <b>光州日報</b>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                |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br>(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 부 2200-649                               | 문화생활부 2200-661 |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                       |
| 정치 부 2200-642                               | 여론매체부 2200-696 | 광고매체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체육 부 2200-697  |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                       |
| 사회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프로젝트팀 2200-555                        | < F A X 02-773-9335 >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                |                                       |                       |